

과학기술인 복지콤플렉스 사업계획 변경

2016. 11.

과학기술인복지콤플렉스 사업 추진 경과

■ 2003~

- 본관(1976)·신관(1996)의 사무실 공간 포화
- 남측 별관(1986) 및 지상 주차장 부지 활용 가능성 검토
- 도시계획상 '제3종 일반주거지역'(용적률 282%)으로 추가 개발 불가능

■ 2013.

- 본관 건물 남측에 건물 신축 적극 추진 결정
- 국정과제 ①-16-4 '과학기술인 연구몰입환경 조성' 세부과제('13.5)

■ 2014.9.

- '수평증축안' 확정: 총사업비 250억 (국고보조 100억) 확정

■ 2015.12.

- 서울시 도시계획 변경 고시(제3종 일반주거지역 → 준주거지역)
- 기공식(2016.2) 및 강남구 건축허가 획득(2016.6)

■ 2016.10.

- 사업계획 전면 재검토 후 설계변경 추진중

복지콤플렉스 '수평증축안'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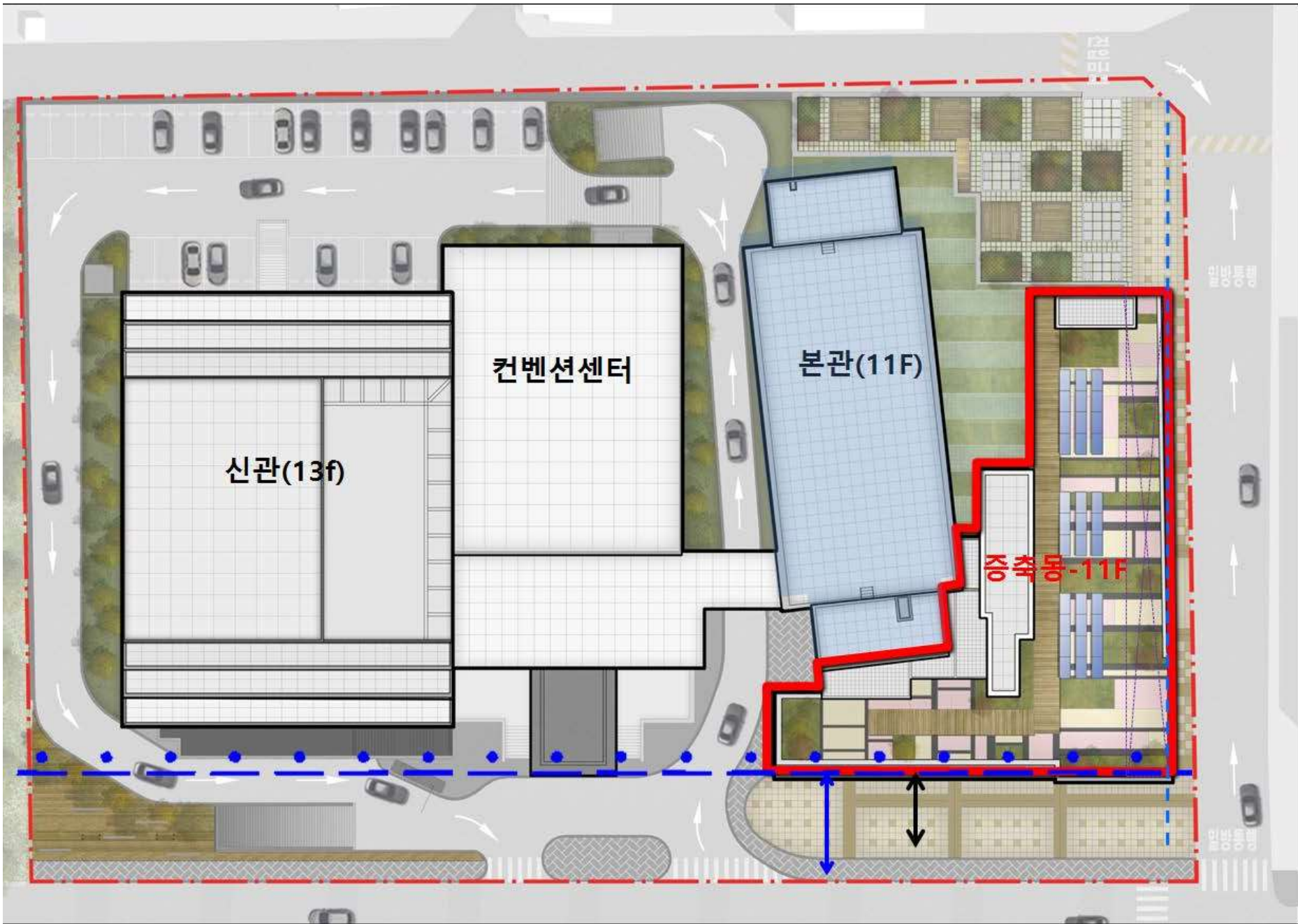
■ 사업 규모

- 지상 11층/지하 5층
- 연면적 16,000m² (약 4,840평)
- 공사비 250억원 (국비 보조 100억원 + 과총 부담 150억원)
- 공사 기간: 2014 ~ 2016.7
- 차입금 상환: 준공 후 11년

■ 주요 사항

- 별관(상가) 철거
- 본관에 연결하여 신축





건축 전문가 의견: 도면으로는 가능하나 시공은 비현실적(정밀시공 필요)!

‘수평증축안’의 검토 사항

■ 본관 및 공사의 안전성

- 본관(1976년 완공)의 노후화와 내진설계 미비
- 지하층이 없는 본관 1.2m의 거리에서 지하5층(약 18미터) 암반 굴착

■ 과층 부지의 활용성

- 40미터 높이의 신축 건물에 의한 본관의 일조권·조망권 침해
- 공사 과정에서 소음·먼지·진동 등에 대한 본관 입주 단체의 민원 발생

■ 신축 건물의 효율성·편의성

- 코어 시설(계단·엘리베이터·기계실 등)의 중복 설치로 활용 공간 감소
- 좁은 건물 폭(1.2m)으로 효율적인 건물 내부 배치 불가능
- 지하공간 통합 개발 불가능
- 본관 층고(3.4m) 때문에 현대식 공조·OA 시스템 설치 불가능

■ 공사 지연

- 도시계획 변경 및 건축허가 지연으로 2016.11 현재 미착공

대안: '통합신축(안)'

■ 사업 규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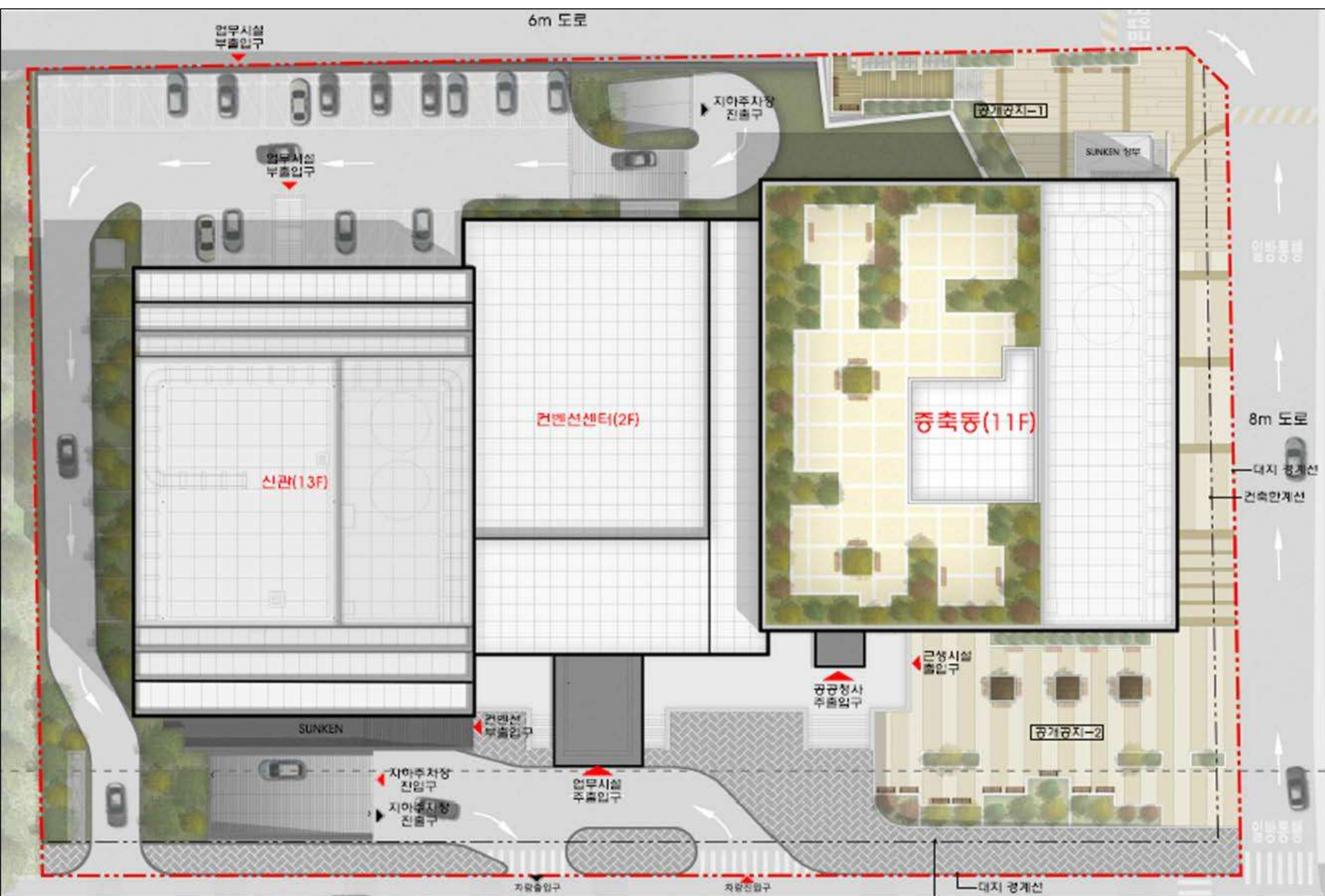
- 지상 10층/지하 4층
- 연면적 25,000m² (약 7,500평): 실사용면적 약 5,000m² 증가
- 공사비: 400억원 (국비 보조 100억원, 과총 부담 300억원)
- 차입금 상환: 완공 후 14년

■ 주요 사항

- 본관 및 별관 철거

■ 장점

- 과총 부지의 합리적·효율적 활용
- 신축 복지콤플렉스의 효율적 활용 가능
- 내진설계 및 첨단 시설 가능



의견 수렴 및 사업변경 추진 현황

- 현 회장(이부섭)과 차기회장(김명자) 합의(2016.9.)
- 명예회장 동의(2016.9.)
- 과총 복지콤플렉스건립위원회 심의(2016.10.)
-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'17 예산안 심의(2016.10.)
 - '미래부는 본관 철거 후 신축하는 통합개발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, 변경 결정 시 그로 인해 불용되는 2016년 예산이 2018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'는 단서 조항을 붙여 예결위원회로 이송
- 향후 일정
 - 과학기술계 의견 수렴: 2016.11.
 - 관련 부처 협의: 2016. 11.
 - 과총 이사회 상정: 2016.11.
 - 관계부처의 사업계획 변경 승인